

한자의 기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안수길

이 글의 전반(前半)은 주제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1970년대의 한국 국토개발 계획을 우리는 이미 모른다”는 내용으로, 그와 같이 무관계한 전단계가 필요한 까닭은 예전에 꽃 피웠던 문명을 후세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이전 일을 모르게 되는 것 역시 30년이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용하는 편리한 많은 것이 ‘조상들의 공’이라는 인식을 하려 하지 않고 태양과 공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으로 알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 못하고, 그들이 남긴 것에서 진지하게 그 가치를 찾아 높게 평가하려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침(鍼)과 한약 등 동양의 의학은 존경하면서 수련 끝에 심안을 열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서양 사람의 재평가가 있어야만 겨우 되살아나게 되는 등이다.

브리타니카 사전에 의하면 ‘태안반도(泰安半島)’는 “충청남도 북서부에 돌출한 반도”로 되어 있다. 이 서산-당진을 연장해 서해로 뻗고 있는 태안반도에서 남북으로 가장 폭이 좁은 곳이 북쪽에서 먹어 들어온 가로림만(加露林灣)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는 천수만(부남호)의 북단과의 사이일 것이다.

고파도(古波島), 용도(熊島)를 그 속에 품은 거대한 가로림灣은 사실은 서해안을 포함해 한반도 산업화 계획을 위해서 전체 국토가 박정희(朴正熙) 혁명정부의 브레인(brain)들의 계획 도마 위에 내맡겨져 있을 무렵(완전히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장 원대한 국토계획을 세우게 된 중심지역이었다. 그 때 그 브레인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큰 견제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사실 그것은 우리 전폭적 국토종합계획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 오원철(吳源哲) 등 몇 사람이 국토산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로림灣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 가로림灣의 입지, 그리고 크기와 깊이 때문이었다.

서해안 뺨(개흙)판의 구매가 완만해 멀리까지도 바다가 깊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때에도 교두보 확보에 필요한 거대 군수물량 양륙(揚陸)을 위해(적지 않는 수의 군함들이) 한정된 ‘물때’인 “4시간” 내에 하역(荷役)을 끝내지 않으면 적군에게 반격돼서 교두보 장병들이 몰살을 당할 상황이었는데 그 경우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것이 서해안의 ‘대형선박 접안(接岸)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시 서해안에서 가장 넓고 깊은 가로림灣만이 크게 손을 안 대도 20만 t(톤) 급의 배를 댈 수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브레인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서해 활용

을 피하였고, 그 새로 만들 거대 항만(가로림)을 기점으로 내륙으로 점점 뻗어가는 동심원(同心圓)으로 무역단지, 산업단지, 행정단지, 그리고 (그 드넓은 산업기지에서 일 할)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등을 만들어 서산(瑞山)은 물론 예산(禮山)까지도 그 번영권으로 만들어 한반도 서해안을 한국 도약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 서해안 전체를 걸쳐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발전계획이었다.

20만(톤) 급의 선박이 많은 물량을 하역할 수 있는 거대 항만건설 계획! 그러나 그러한 꿈은 그 다음 정권들이 존중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마치 전임자를 미워하기라도 하듯 그 위대한 계획에 칼질을 하기 시작해서 오원철씨는 부정부패로 몰려 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가로림灣 계획은 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20만급 선박 접안이 가능했을 그 가로림灣이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사장(死藏)하고 만 것은 한국 발전을 위해서는 크나 큰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 서해안 관문(關門)으로 평택항(평균 수심 14m, 5만급 이상의 대형 선박 기항(寄港)이 가능), 아산만(2만~10만급)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산업화 최선을 위해서 가장 부담 없이 출발해서 만들어진) 가로림灣 계획에 비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후 ‘가로림灣’이란 이름은 의도적으로 목살이 되어 한 동안은 이 ‘가로림灣’은 ‘Naver’ 등 검색기능은 물론 인공위성 지도 ‘Google’에서까지도 찾기가 어려워져서 ‘중국편 Yahoo’ 등을 찾아야 그곳 자료에서 박정희/오원철의 가로림灣 계획의 규모를 알 수 있었던 시기까지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엄연히 있었던 일까지도 말살이 되었던 시대를 거쳐 그 다음에 다시 일부 자료에서 ‘가로림灣’을 찾게 되었으나 이제 ‘가로림灣’은 “이슬을 더해줄 숲”이라는 뜻을 상상할 수 있는 ‘유의(有意) 것’이 아니고 ‘Carolyn’을 연상케 하면서 ‘언젠가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정도로 완전히 망각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史實) 유실(流失)은 (페르시아문명의 경우에도 1000년을 망각이 됐던 것이지만) ‘가로림灣’의 경우를 보면 한국 땅 지금 세상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엄연히 있었던 일을 반고의(半故意)로 말살하는 것이어서 분개(憤慨)할만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 우리들의 ‘그럴 수가 없다’는 반항적 인식을 애써 ‘그럴 수도 있다’로 고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일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를 두고 훌륭한’ 문명을 제 땅에서 제 손(孫)들이 말살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자(漢字) 문명’에 관해서도 (비교적 지금까지 기록물이 많이 남아있는)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위대한 문명발생과정 기록에는 역점이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창힐(蒼頡)이 도입했다”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도 그들 중국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중국의 문명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거의 같은 시대의 황제는 황제내경(黃帝內經)과 소녀경(素女經)을 포함해 250권의 전적(典籍)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자의 역사는 황제시대(BC 2679)를 넘나들 정도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에 비해서 알파벳(alphabet)의 유럽 도입은 BC14세기이니 그 간 유럽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후세 전달은 주로 음유시인(吟遊詩人)들의 구전(口傳)에 의했던 것이다.

한 편 일청 성세영(一晴 成世永) 옹의 ‘일청사고(一晴私稿)’에 의하면

“古文”은 蒼帝의 所作이라 하며 文得(?)干天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蒼帝는 과연 누구인가 알아보기로 하자. 史皇氏 蒼頡은 蒼帝라 하였고, 蒼帝는 ‘東皇’이라, ‘玉皇’이라, ‘玉皇君(?)’이라, ‘木公’이라, 또는 ‘東王公’이라 한 것을 모두 다 종합해보면 결국 蒼頡은 우리 東쪽 “한배”를 일으키지만...

라 하니 결국 창힐(BC 2563)은 동방에서 많은 고자(동방문자, 즉 한자의 기원이 된 기호(記號)군 중 배달국(일월국(日月國)의 것)을 그곳에 도입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女’자 변의 대부분은 창힐, 그가 창제(創制)한 것이라고 하니 그는 ‘웅녀(熊女)계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림 1에 제시된 글에서 보면 당시 창힐(倉頡)제는 황제의 신하(臣下)가 아니고 대요(大撓)와 함께 황제와 “정치(鼎峙): tripod”의 대등한 입장에 있었고, 게다가 대요는 ‘간지술(干支術)’, 그리고 창힐은 ‘부도지문(符圖之文)’을 받고 있어서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 삼일신고(三一神誥)에서 보면 당시에 있었던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은 녹서(鹿書), 우서(雨書), 화서(花書), 용서(龍書), 단군의 신전(神篆) 등이고, 그 후에도 부여(夫餘) 왕문(王文)이 부예(符隸), 숙신(肅愼)에서 예(隸), 진(晉)나라에서 해서(楷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한(漢)나라’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동방문자의 결집인 ‘한字’를 ‘漢字’로

三聖紀全 下

時天下鼎峙涿之北有大撓東有倉頡西有軒轅自相以兵欲專其勝而未也初軒轅稍後起於蚩尤每戰不利欲依大撓而未得又依倉頡而不得二國皆蚩尤之徒也大撓嘗學干支之術倉頡受符圖之文當時諸侯罔不臣事者亦以此也

그림 1.

蘇塗經典 三一神誥

卽與郎河里岩刻的是皆實跡也世傳
神市有鹿書 紫府有雨書 蚩尤有花書
開佃文東卽其殘痕也伏義有龍書 檀君有
神篆此等字書通用 於白山黑水 靑邱
九黎之域 夫餘人王文始以篆爲煩而稍省
其劃新作符隸而書之秦時程邈奉使於
肅愼得王文隸法於漢水又因其劃而小變
之形是今之八分也 晉時王次仲又作楷

그림 2.

표기하게 된 까닭은 ‘진(辰)’으로 나타내 ‘동이족’을 뜻하는 ‘은하수(銀河水) 한’[‘한(漢)’의 제이의(第二義)의 뜻으로 ‘漢’을 쓴 것이다.

원래 태곳(太古)적부터 있어 왔던 ‘한’이라는 ‘소리’가 강력하고, 큰 것을 뜻해 왔기 때문에 한 나라가 건국할 때 “漢”을 써서 이미 존경 받고 있던 ‘한’을 표방한 것이다.

그 다음 ‘한나라’가 더욱 더 강성했기 때문에 자전에서 제일의 자리로 나오고, 은하수 한은 뒤로 밀린 것으로, 이 제이의(第二義)의 ‘한’은 오히려 ‘干’나라, 즉 ‘東夷의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일칭 성세영 옹은 같은 글에서 다시 태호(太昊) 복희(伏羲) 역시 우리 일월국(배달국)사람임을 논증하고 나아가서 주역(周易)의 설괘전(說卦傳)을 인용하면서 동방에 월등히 더 발달한 문명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다시 설명하기를

帝出乎震하여 齊乎巽하고<중략> 萬物이 出乎震하니 震은 東方也

를 인용하면서 당시 ‘제(帝)’다운 제는 동방에서 나왔고, 모든 발달된 사물 역시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에서 2중 측선(側線)은 ‘신벌(神市)’, ‘청구(靑邱)’, ‘구려(九黎)’ 등 국명을 나타내고

단일 측선부분은 당시 존재했던 동방문자들(proto-한자)의 명칭이다.

						唐이서 殷에서 漢에서 日月國의 古文인	古文 尖字 가 現今의 楷書 된 例
楷書	篆字	尖字	楷書	篆字	尖字	楷書	篆字
旦	旦	旦	乙	乙	乙	天	而
氣	氣	氣	日	日	日	神	神
山	山	山	百	丙	丙	人	人
春	春	春	丑	月	月	中	中
東	東	東	月	月	月	世	世
冬	冬	冬	口	口	口	子	子
宮	宮	宮	目	目	目	生	生
祠	祠	祠	艸	艸	艸	出	出
宗	宗	宗	大	大	大	甲	甲

그림 3.

이것들을 후세에 진시황(秦始皇)이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정리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옛것들을 폐기시킨 과정이 후세에 악성(惡性)루머로 전해진 것이 ‘분서갱유(焚書坑儒)’인 것이다. 당시 왕은 ‘천자(天子)’의 이름을 걸어 일력(日曆), 도량형(度量衡) 등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만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한편 기록에 보면 당시 장의업(葬儀業)으로 유생(儒生)들의 악행은 대량처벌할 만한 사회악(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분서갱유’에 의해 동방문자들은 이제 기록이 드물지만 진시황이 대전/소전으로 정리한 상술 고문(古文)/첨자(尖字)는 그 후 ‘한(漢) 나라’에서 고치고, ‘당(唐) 나

라'에서 해서(楷書)로 발달해 갔던 것이다.

그 다음 후세에 우리는 이 해서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들의 것이고, 오히려 원형인 고문/첨자에 이질감을 느끼지만 우리 연구자들은 아래에 있는 첨자(尖字), 전서(篆書), 그리고 해서(楷書)의 비교표에서 이성(理性)으로 그 이질감(異質感)을 극복해 가면서 찾아진 '한자의 근원' 글자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질감 극복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일청 성세영 선생은 후세의 이러한 변천을 “조자(造字)의 주권 창탈”로 부각/지적하면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어서 일단은 불편한 느낌이겠지만, 그러한 ‘중국인(中國人)들의 악의(惡意)’는 사실상 있어왔던 것이다.

특히 ‘명 나라’ 이후 조선조 조신/학자들이 한 동안 청조(淸朝)를 인정하지 않았고, ‘명나라’까지의 동방(중화 中華: flowering in the universe center)문화를 ‘소중화(小中華)’라 호칭하면서 (함께 향유하던 명나라가 망해 버렸기 때문에) 조선에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 조선조의 뼈대 있는 한학자들이 청국(淸國)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동안 ‘청 나라’(강희제, 건륭제)에서도 열등감을 갖고 경쟁의식으로 그들의 서적 한국반출을 불허한 시기도 있었기에 후일에 의암 류인석(毅菴 柳麟錫) 등도 “우리가 소(小)중화”라는 한국의 위상을 주장했던 것이다. 청국 초기의 대륙인들의 열등감은 오늘날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 역시 상기 일청선생의 “창탈”, “임의삭삭(任意刪削)” 등 강한 표현을 이해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위에서 제시한 일월국(배달국)의 첨자와 그 후에 전변(轉變)된 (우리에게 익숙한) 전자(篆字)와 해서를 비교해 보면 무당들의 부적과 아울러 한자 역사의 유구함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민족의 관심이 변천해서 흐지부지 흘러 버리게 된 (한 나라의) 지난 문화의 사례는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가로림灣 계획’과 같이 (같은 땅의) 후손에 의해서도 그렇게도 쉽게 망각되고, 유실될 수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탐색하는 마음으로 드물게 남은 역사 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다시 다른 시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고시대에 올라갈수록 우리의 문명이 깊이가 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금의 잘못된 흐름에 편승해서 의도적으로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